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국회 출석 이석준(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27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에너지 민영화... 첫날부터 설전

국회 상임위 업무 보고...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도마위에 여 "경제 손실" vs 야 "취지 훼손"...김영란법 공방 치열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논란과 법조비리, 가습기 사건 등 각종 사회·경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정취했다.

정무위의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김영란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정립 사회 구현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9월28일 시행을 앞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한국경제연구원 이 대표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 거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 피해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흥만표·최유정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 등 법조비리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흥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씨가 구속이 안 됐으면 로비가 통한 것인데, 구속이 됐으니 로비가 실패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게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나"고 따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민은 검찰

과 법무부가 어떤 잘못 있는지 명백히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로비가 있었으나 실패한 로비라는 결론에 동의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도입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법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머지 않아 대책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원들은 여야 없이 당시 피해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뉴앙스의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비판했다. 산자위에선 전역 판매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전기로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실시 합의

여야는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계획서 작성 등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절차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

핑에서 "그동안 국민께 많은 피해를 끼쳐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 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갯속' 새누리 전대

김용태 유일 출마선언...최경환·이정현 등 공식선언 유보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 지도부 경선에 나서는 후보군이 아직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눈치만 보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뒤늦게 결심한 비박(비박근혜)계 김용태 의원은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을 뿐 최대 20명 가까이 거론되는 다른 후보군은 모두 상황만 주시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경환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여전히 최대 변수다. 당 대표 후보로 이정현·이주영·홍문준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굳혔지만 여전히 공식 선언은 유보하고, 원유철·정우택 의원이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도 '최경환 변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거의 유일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근 유승민 의원이 복당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하지만, 유 의원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을 뿐 거리를 두고 있다. 현재는 유 의원과 가까운 이해훈 의원이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성 전 대표와 가까운 그룹에서는 강석호·김성태 의원이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선 경선 룰 개정에 관여할 차기 지도부인 만큼 유력 대권 주자인 김 전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조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시·도당 위원장 8월 중순 선출

광주 13일·전남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27일 열리는 가운데 시·도당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개편대회 일정이 8월 중순으로 확정됐다.

27일 더민주에 따르면 광주시당 개편 대회는 8월13일, 전남도당 개편대회는 8월16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개편대회에서는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당위원장 후보로는 박혜자 전 국회의원과 광주 북구에서 출

마했다 나산현 이형석 전 광주시경제부시장, 동남을에 출마했다 낙마한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으로는 더민주 광주·전남 지역 유일 현역인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의 재선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권역별 최고위원 5명은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 5개 권역에서 1명씩을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뜨거운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국민의당 추경 편성 놓고 온도차

"청사진 제시하라"... "정부에 적극 협조"

추경 편성을 놓고 아련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정부에 추경 편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추경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브렉시트 사태로 개방경제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은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추경편성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브렉시트 같은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막연하게 추경 필요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했을 때 내실을 추구하면서 우리 체질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장관은 7월 초중순까지 추경이 통과돼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추경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7월 통과'를 말한다"며 "추경을 편성하려면 30

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6월말이다. 어떻게 7월 초순에 추경을 통과시키나"라고 비판했다.

더민주가 제동을 거는 배경에는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대세에 휩쓸리기 보다는 추경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데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지 바란다"며 "정치권은 정부가 추경안 제출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추경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신임 대변인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신임 국회 대변인(1급)으로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현대아산에서 대북 관련 사업을 담당해와 정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의장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이승현 대구미래대학교 부교수를,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정성표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당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